

여학생운동에 대한 과학적 신념으로
실천속에서 전여대협을 대중조직답게 세워내며
여성민중의 자주성을 향한 투쟁의 불씨를 김대중퇴진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고
여성민중의 가슴마다 반미반일자주화의를 물들여가자.

보내는 기쁨: 6기 전여대협 중앙집행위원회
받는 즐거움: 전여대협 산하 각급단위 여학생회
보내는 날짜: 2000년 3월 14일 화요일
용도: 3.4월을 잘살아보기 위하여
참조: 3.4월 사업계획서가 늦게 제출되어서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1. 들어가며

2000년 3월 1일 400차 수요집회때 전경들에 둘러싸인 위기 상황에서 '학우' 등을 타고 올라서 마치 82년전 유관순 언니가 살아들어온듯한 모습으로 일본과 사대매국정권을 규탄하며 시민에게 호소하던 전여대협 임시의장님 이하 성추행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굽히지 않고 투쟁하는 여학우들의 의기어린 모습에서, 3.8대회를 맞이하여 자신의 조직을 정비하고 여성의 문제를 당당히 제기하고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여성민중들의 모습에서 우리 여성들의 자주성과 변혁의지가 점점 고양되고 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학우 더니아가 여성민중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주인체로 자각하고 일떠서는 데 우리 여학우들의 선봉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2천만 여성의 등대지기로 여성의 자랄한 일상에서부터 반외세의 문제까지 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이 있는 곳 어느곳이든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하였던 여학우들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의 고리가 더욱 옥죄어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나만큼 더욱더 강한 마음으로 나로부터 새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결의와 각오로 3.4월을 임하도록 합니다.

2. 400차 수요집회 평가

1) 400차 수요집회의 의의와 목표와 평가

40.차 수요집회는 기간 8여년간의 일본군위안부 해결 투쟁을 대중적으로 총화하고 반일 반김 투쟁을 확산시켜가며 여학생회 주위로 새내기 및 학우들을 결집시키면서 여학생회의 대중조직기반을 다져가는 데 그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조직적 의의와 목표안에서 이번 투쟁을 이후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투쟁 궁극적인 반일 반김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점으로 보았으며 기층에서는 특히 새터기간에 조직화된 새내기들과 여학우들을 단련시키는 장으로서의 의의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의의와 목표대로 투쟁이 진행되고 성과를 가져갔으나 아쉬운점은 이러한 일반적인 목표와 더불어 구체적인 이번 400차 수요집회 투쟁의 상을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단위에서 생각한 이번투쟁의 상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의조직화의 과정

중앙에서는

이번 400차 수요집회를 준비하면서 집회제안서와 의식화 자료를 제출하고 서총련 단위와의 논의, 기층 단위 허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시기늦게 제출된 점과 직접적인 의조직화 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몇 지역 여학우들이 많이 조직화되지 못하였는데 지역여대협의 부재와 밀착적 지도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기층에서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당면투쟁에대한 의조직화공정을 중요하게 여기었고 대학우의식화에서 내용적으로 충실하려고 노력이 보였습니다.

3) 당일투쟁의 평가

성과지점

① 각 계급계층별의 대중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과 집회를 성사시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정도로 다양한 계층과 함께하는 집회라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의 전면중적인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김대중정권이 더욱 많았던 '위안부'할머니의 발언을 들으면서 '위안부'할머니들의 분노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②김대중 정권의 반여성성과 폭력성 및 사대매국성을 드러내면서 정치도덕적 우위에 서는 투쟁이었습니다.

투쟁의 내용이 정당하였고 평화적인 기구행진을 벌여나가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이 시위대열을 막아나서고 여학우의 손에 상처를 입혔으며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누가보아도 정권의 폭력성과 반여성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③새내기 및 골간일꾼까지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가지고 있고 누구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새터 공간에서 새내기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400차 수요집회 자리까지 함께 오면서 민족의 문제까지 고민하게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여학단위의 투쟁이라고 해서 여학일꾼들이나 학우들만을 조직화하여 왔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골간일꾼들을 조직화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여학생운동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동지로 바라보지 못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투쟁에서 여학일꾼들이 주동적인 자세로 골간일꾼들을 조직하였던 남녀대협과 경희대의 모범, 전여대협에서도 서총련에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했던 모범이 있었습니다.

④여학일꾼들의 실천투쟁이 강화되고 실천투쟁기운에서 단련되며 전여대협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였습니다.

기간 여학일꾼들이 주도하는 투쟁은 자체의 역량과 경험상의 한계들로 인해 집회의 수준에 더무르는 경우가 많거나 실천활동에서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서도 확인했듯이 투쟁과정에서 실천활동에 있어서 여학일꾼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었고 끝까지 힘있게 투쟁하는 모습을 잃지않음으로써 투쟁의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특히 사태의 정황에 맞게 대열을 지도하고 대시민선전을 하였던 전여대협 의장님과 남녀대협의장님의 역할이 돋보였고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대표자분들의 역할이 높아졌으며 투쟁속에서 검증되어졌습니다. 이는 전여대협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⑤ 유연한 전략 전술의 발휘로 투쟁을 성과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전투경찰에 의해 원천봉쇄가 되는 생각지 못한 상황에 봉착하였지만 사태에 대해 주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처한 모범들이 있었던 투쟁이었습니다.

이슈운 점

①아직도 자체 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미숙함과 준비의 부족이 드러납니다.

많이 개선된 면은 있으나 일시분란한 투쟁의 지도가 미숙하고 전체 학우들에게 사태와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4) 후속작업

① 조직화되었던 학우들을 이후에 잘 총화하고 계속적으로 쟁기는 작업과 소모임등을 통해 여학단위위로 묶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② 개강을 맞이하여 400차 수요집회를 학우들에게 보고선전을 합니다.

③2000년 학생전범법정까지의 지속적인 학내의식흐름을 만들어 가야하겠습니다.

5) 모범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에서 400차 수요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내선전 사업 뿐 아니라 2월 새터때 문과대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하여 새내기들을 의식화하고 그 때 모여진 새내기들을 400차 수요집회에 함께 하게 하였다. 당일날도 시간에 맞추어서 총여학생회 깃발이래 묶여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골간일꾼까지 함께 조직화하여 온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남녀대협

-남녀대협에서 띄운 평가서 참조

3.정세

(여성적 관점으로 한총련 3.4월 사업계획서에서 제출된 정세를 참고하며 당면한 정세가 여성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0)세계여성은 지금

1) 세계여성의 처지와 조건

'21세기에는 여성성과 여성적 감수성이 대접받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희망적 예측이 곧잘 신문 지상을 오르내린다. 하지만 오늘날 전세계 여성들의 삶에 드루어진 어두운 그림자는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단순한 수사(修辭)에 불과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는 대다수 여성들이 여전히 시장의 폭력과 제도화된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지난해 유엔인권이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하루 소득이 1달러에도 못미치는 15억에 달하는 절대빈곤 인구 가운데 70% 가량은 여성이 차지합니다. 또 전체 성인 인구 가운데 문맹인구가 10억을 넘고,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성들이 사회적 자원으로 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들은 우선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 크게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의회연맹(IPU)이 6일 발표한 '정치 : 여성의 통찰력'이라는 보고서는 세계 65개국 의회 의원 가운데 13%만이 여성이며, 남성이 지배하는 정당들의 완고한 자세가 여성들의 의회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스칸디나비아반도 5개국과 독일,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만이 여성의원의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밝혔다.

여성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스칸디나비아 3국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약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7일 최저생계선 이하의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의 4분의 3이 여성과 그들이 양육하는 자녀이며,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은 공동성명에서 70년대 이후 최저생계선 이하의 빈곤여성 수가 50%나 증가한 데 비해 빈곤남성은 30% 늘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전국노동조합회의(NTUC)는 보고서에서 임금평등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지만 임금의 남녀평등 측면에서 영국은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중 10번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엔아동기금(UNICEF)은 7일 한 연구결과를 통해 "남아시아 각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반적 인식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 세계여성의 투쟁

세계 여성들은 세계여성날인 8일부터 10월17일까지 자신의 요구들을 토론하고 촉구하는 폭넓은 활동을 벌일계획입니다. 일명 세계 여성 대행진이라고 하는데 이 대행진은 지난 95년 캐나다 퀘벡 여성들이 '빈곤 추방을 위한 빵과 장비 행진'을 펼친 데서 비롯됐습니다. 2년 뒤 퀘벡여성연합은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행진할 것을 제안했고, 지난해 11월 퀘벡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행진을 위한 국제협력위원회에 우리 나라의 이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등 11개 지역 대표 37명등도 참가해 구체적인 전략을 짰습니다.

이번 대행진에는 143개 나라에서 3000개 이상의 단체들이 동참한다.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선포식을 연 뒤, 각국 단체들은 여성의 시급한 요구를 정부 등에 제기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오세아니아 등 권역별로 회의를 열어 요구들을 간추린 다음, 10월17일 각국 대표들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에 모여 세계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 속에서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종식, 제3세계 부채 탕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요구할것입니다. 한편 폭력의 추방을 위해서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의정서의 비준과 이행을 국가들에 촉구하며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법령의 비준 또한 빠지지 않는 요구입니다.

(1)외세에 의한 우리 여성민중의 피해

1)미군에 의해 여성민중의 직접적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살해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씨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매카티 상병에 의해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미군에 의한 한국여성의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주한미군이 살인집단, 범죄집단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9월 이정숙씨의 사망사건을 접하고 채 1년도되지않아 벌어진 일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매카티 상병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비호아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던 처음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는데 그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행동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히베리 여성 서정만씨 피살

3월 11일 오후 2시50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사는 서정만(66.여)씨가 자신의 방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정만씨는 6'25때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아왔고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는 상태였으며 죽는 당시까지 미군등을 상대로 윤락행위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명 히베리라고 하는 기지촌 여성이었습니다. 전날 미군과 삼하게 다투는 소리가 있었고 서씨의 사망원인인 심한 구타로 인한 쇼크사로 밝혀지면서 그 전날 함께 있었던 미군의 소행임이 확실합니다. 김성희씨의 살인사건속보의 물결이 마르기도 전에 또한번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미군의 성노리개로서 성적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지촌 여성들의 경우가 많아서 법의 보호를 잘 받지못하고 언론의 보도에 통제 당하여 더욱 은폐됩니다 현재 기지촌 여성은 전국 50여 곳의 1만여명으로 집계됩니다.

80-90년대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90년대 중반이후에는 관광특구 지정, 동남아계 여성들의 유입과 IMF사태로 기지촌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당하면서 때로는 성폭력까지 당하고 있고 김성희씨나 서정만씨처럼 언제 미군에 의해 살해당할

지 보려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매항리 주민들은 지난 45년간 그리고 현재도 소음과 폭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한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산이 커지고 기형아의 출산이 수천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책동은 계속되고 있고 이속에서 주한미군 철거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런상황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여성의 희망과 미군에 의한 살인 폭력의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동군사훈련, 무기수입, 무기실천배치 등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대통령후보 지명과정에서 보여지는 공화당 후보들의 강경발언, 미 CIA 국장이 하원에서 밝히 이북의 미대륙 공격 가능성 이야기 등으로 전쟁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적 지배책동에 대항하여 정치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최근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발사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 세계 지배구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적 대결구도가 명백해지고 있는 과정에 동북아 지역에서 친미국가들과의 군사적공조를 강화(대만, 한국, 일본)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전략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성을 계속 높임으로써 자신의 군사적 공조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하는 계략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또, 한층으로는 미국의 군수자본과 결탁한 호전 집단들이 미대륙의 전략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수천억 달러의 돈을 들이고서도 연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모면하고자 이북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몰락해가는 미제국주의를 버텨보고자 전쟁에 발악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짐작하는 것은 꿈에도 불가능한 일이며 전쟁위협속에 늘 가장 불안한 처지일 수 밖에 없는 우리 여성들의 처지는 여전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3)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과거청산의 오도

①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초반만 하여도 경제대국, 미국유수의 기업을 모두 사들이는 제2의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꼼꼼히 일본의 경제상황을 들여다 보면 일본경제는 전쟁으로 인하여 기간산업이 무너진 타국을 이용하여 급격하게 융성되어온 경제이다. 그 이유로 내수산업보다는 외국 수출을 통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온 경우로 그러나보니 내수산업이 튼실하지 못하고 거품경제이다. 특히나 지난 세기 말부터 아시아지역에서 불어닥친 경제적 어려움 및 엔고현상으로 수출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그간 저축등을 통해 긴축생활을 하여왔으나 지난 10여년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자율속에서 이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들이 가중되고 있고 임금상승에 비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일본국민들이 도시외곽으로 이탈하고 있으며 생산에 비해 수요량이 저조하여 일본내에서 생산량을 더욱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위기를 일본의 역사상 제4의 위기라고 불릴만큼 위험지경에 빠져있다. 또한 일본내의 극우파인 집권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전쟁과 동남아패권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그 첫단계로 한반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해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자위대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맺었으며 이북의 미사일 및 납치문제들을 들면서 망언과 대북 위협발언을 강화하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 최근에 일본은 생화학 무기 실험법안을 통과시키고 대북에 대한 호전적인 망언-이북에 대하여 일격을 가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으며 겉으로는 이북과의 수교문제를 내세우며 동북아의 평화를 바라는 듯 하지만 호·탐탐 전쟁의기회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②과거 청산문제의 오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구 일본군의 군속이었던 재일 외국인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해 위문금 지급대상을 조선인 출신자들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민기금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청산하려 했던 일본의 오만한 태도가 되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네델란드에 공식적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지만 한국의 위안부에 대하여서는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에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죄행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회피하려고 온갖 술책을 다 써왔습니다. 사죄는커녕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구미 열강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며 아시아 침략을 해방으로 묘사하고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 등에서 과거 일제 침략 역사를 서술한 내용들을 없애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은 강제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꾀변을 늘어놓으며 과거에 저지른 죄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범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일본전범자들의 입국이 불가능하였는데 최근 다시 이들이 틀어와서 개별적으로 할머니들을 만나 위문금을 받으라고 선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옥주할머니와 이영숙할머니, 율해들여 벌써 두분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아있는 피해자할머니들의 연세를 보아서나 몇푼의 위문금으로 과거의 죄행을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이러한 작태를 보았을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4) 김대중 정권의 반여성, 시대매국적 행위는 그 끝을 모르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씨 살인사건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태도

이번 살인사건에서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그들이 과연 한국의 검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동수사과정에서 보여준 최소한의 수사원칙인 현장보장 조치도 잘 하지 않았을뿐더러 현장검증시 철저히 언론의 통제를 하면서 시진조차 허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혐의하는 단체 및 기자들에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등 이전의 미군범죄사건때와 다름없는 아니 오히려 더욱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김성희씨 사건을 접하면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도 매카시상병을 불구속 기소로 처리

한국은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미전 김경자라는 여성경찰서장을 내세우며 한참 매춘과의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온갖 매춘 지역을 들쭉시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개혁적 모습을 보여준 것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기지촌이라는 또다른 매춘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문제에 대하여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 과연 그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보이는 김대중 정권의 모습

수요집회가 400차가 되도록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보여준 모습은 다만 그들의 대사관 앞을 시꺼먼 전경들로 무장해 준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들의 편에 서서 공식 사죄와 보상을 국가적으로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과의 과거사는 이제 접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등 오히려 전대 정권보다 못하게 일본에 모든 것을 내주고 있는 것이 정권의 모습입니다. 단적인 예로 400차 수요시위 과정에서의 폭력 진압 또한 바로 정권이 보여주는 이 문제에 대한 태도입니다.

(2)여성민중들의 생존권은 새천년이 들어서도 여전히 처참합니다.

1)여성노동자들의 현실

통계상으로 본 여성노동현실

15세 이상의 인구는 3천 6백만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서 여성숫자가 천팔백만명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숫자)는 8백만 정도입니다. 약 천만명 정도의 여성이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4백만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전업주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인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들의 전체 실업률은 4.4%정도라고 정부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망실업자의 숫자가 제외되고 1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일하고 있는 사람은 또한 제외되었기에 정확한 실업자의 숫자를 반영할 수 없다는 차더라도 전담이나 전년과 비교하여 1%에서 많게는 1.5%정도로 더욱 증가 추세입니다.

이는 여성의 고용현실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정부가 실업률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것도 잘 살펴보면 정규직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수치상 실업률이 나아진다고 해도 여성의 고용에서의 착취와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노동자 중 70.5%(통계청, 99년2월 현재)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 수치는 남성노동자의 2배 가량되는 수치이다. 금융권 신규채용은 90%가 비정규직이며, 그 가운데 82%는 여성이다. 한편 파견직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파견업체의 난립으로 법규위반도 심각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57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72.2%에 불과하고 해고를 당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출산관련 휴가를 주는 사업장은 단 한곳도 없었다.

직장을 잃었던 여성의 재취직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노동부에 따르면 IMF체제를 전후해 직장을 잃은 사람중 지난99년 4.4분기동안 다른 직장을 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된 남자는 14만9백 54명, 여자는 7만2천5백6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직에 성공한 남자와 비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1.5%에 불과했다.

이에반해 이 기간중 처음으로 직장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남자는 1만4천1백89명, 여자는 1만3천3백89명이었다. 신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들 기준으로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94.4%에 달했다. 경력자(전직 실업자)의 남녀 비율보다 42.9%포인트 높았다. 첫 직장을 얻은 여자의 숫자는 남자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재취직 과정에선 남자 2명당 1명꼴로 급감한 것이다. 지난 98년 1.4분기 신규고용보험자격 취득을 기준으로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64.7%로 경력자 남녀비율(40.0%)과의 차이는 24.7%포인트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IMF위기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감원이 더 많았는데도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은 남성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등 고용기반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에선 신규 인력을 채용할 정도로 여유를 되찾았는데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켰던 여성근로자를 재계약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좁혀지세히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4대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조사결과,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53.9시간씩 노동하고 있었으며, 판매직 노동자들은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주당 61.1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임금은 66만9천원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인권보호 조항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휴가사용(70.7%)을 비롯해 임금인상(67%)과 4대 사회보험 적용(45.9%), 노동시간단축(33.7%) 등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여성노동자의 71%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해 11월부터 전국 7개 지부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과 불법사업체 고발, 노동부의 행정지도 촉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렇게 수치상 나타나는 고용현실 뿐 아니라 개별개별 사업장마다 여성의 처지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캐디도 노동자다!

한화그룹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40세된 경기보조원(캐디)들을 2000년 1월 1일자로 해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직장에서 10-17년간 몸바쳐 일해온 기능직이지만 40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경기보조원들은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못하 채, 성희롱을 당하고 골프채에 맞는 등의 산업재해 노출,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보조 업무는 골프경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단순서비스직이 아닌 전문서비스직 노동임에도 ‘경기보조원은 젊고, 예쁘고 나이가 어려야 한다’는 식으로 한화는 경력이 오래되고, 회사에 헌신한 경기보조원을 짜르면서 한편으로 새로 신규경기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10월 부산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 성희롱 사건과 집단해고를 계기로, 노동부는 ‘경기보조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라는 행정해석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화그룹은 조합원들의 개별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은 빨갱이 집단이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며 온갖 회유와 협박을 통해 노조탈퇴를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자들의 출근투쟁에 대해 정문진입을 막고 있으며, 교섭을 요청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자도 아닌데, 왜 당신과 교섭해야 하느냐’라고 일관하며 대기업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카골프장의 해고자들은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인가 아닌가에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하지만 노동부는 두달이 되도록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에서는 2000년 1월 1일자로 3년차 이상 계약직 시간제를 해고조치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에 해고조치된 계약직 시간제 간호사와 한혈원장원 15명은 모두 5년차 이상 근무자들로 4~6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해왔으나, 혈액원측은 1999년 11월, 12월에 걸쳐 28명의 계약직 시간제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도 장기근속자들을 ‘근속연수 5년차 이상자,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 기준으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바 있다.

2) 여성농민의 현실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여대생의 현실

여성의 실업률 가운데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은 20세에서 29세사이의 여성입니다. 대부분 이나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들이 많은데 이를 보더라도 여대생의 고용현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3월 들어 2월 졸업을 한 많은 대졸 출신 신규 실업자들이 늘어나서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특히 사회적 성차별속에서 여성들의 취업은 더욱 어렵기에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결국 여성도 사회봉사를 하면 점수를 인정해준다는 가산점 제도를 오히려 유지시키고 여성에게 2중부담을 안기는 식의 정책을 입안한 정부의 반여성적 결정으로 그나마 희망마저 다시 버려야 하는 지경입니다.

학내에서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리 사정이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우선 점점 대학에서 여대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여대생의 비율이 절반이거나 더 많기도 합니다. 올해 새내기의 비율을 보더라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일제히 등록금을 7%에서 많게는 15%까지 인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학비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서 휴학하거나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남학우들의 경우는 학비조달이 어려우면 군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학우들은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등으로 학비를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여학우들의 휴학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고 4년만에 졸업하는 여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학교수업만으로는 취업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속에서 새내기부터 영어, 컴퓨터등의 학원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대학마다 시험기간이 아닌데도 도서관 자리가 없는 지경입니다. 남자들보다 두배는 열심히 해야 취직할 수 있다는 현실속에서 여학우들은 심리적 부담감과 어려운 경제현실고를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3) 김대중 정권은 빈여성정권 빈민중 정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매춘근절의 허구성

요사이 신문지상 및 TV를 통해서 미성년자 매매춘 단속 및 미아리등의 윤락 향락 업소에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기간 정부가 매춘등의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면 이번의 조치가 개혁적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매춘의 근절에는 고민해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단속이 전체 매춘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보다는 미성년자에만 한해졌다는 것, 그리고 단속 지역도 전체 매매춘 지역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몇군데 한시적인 측면과 매춘여성들에 대한 재활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 방법을

보색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 매춘여성들의 매춘단속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해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매춘을 전체적으로 근절하지 않는 한, 매춘여성들이 포주에 의하여 착취당하는 구조자체를 없애지 않는한 매춘근절은 요원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각 당과 정치권의 선심성 여성공약 낭만

매 선거때가 되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장미빛 공약이 나오는 것은 그리 놀라울 것이 아니지만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각 당 마다의 여성공약은 그 내용과 기질수면에서 보나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할당제나 무순무순 제도나 하는 일반 여성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세우기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난 2년여간 김대중 정권이 취임때부터 약속한 여성관련 여러 정책들과 과연 그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몇가지 법, 제도의 신설이 여성민중의 생존권적인 여러 요구들은 대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땅 여성의 현실과 맞는 여성정책인지 의문이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여성들은 싸우고 있다.

1)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① 비정규직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성노조와 여성단체의 결성여성노동자들은 IMF 구제금융이 불러온 경제위기 앞에 성차별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임시직,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아이 유고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되었고,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한 퇴직 압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균등한 처우가 당연시 되고 있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노동권, 평등권마저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여성노동자의 현실적인 요구로 인하여 작년 서울지역여성노조가 결성된 이후 대전여민회 노동위원회 여성노동센터가 개소하는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실업과 반실업의 기층여성들을 위한 노조와 단체가 결성되어왔습니다. 또한 이번 2000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마산 창원, 익산, 전주, 안산, 부천 등 9개 지역에서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②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 5년차 이상 비정규직 복직투쟁 승리!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와 대한적십자 혈액원노동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할 경우 재계약회피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이번 해고조치는 부당하므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당사자들은 해고철회를 요구하는 '출근투쟁'을 지속하였다.

이에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1월 21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복직시키겠다는 통보를 받고, 1월 24일 동부혈액원장과 협상을 실시하여 이번 해고가 불법적인 것이므로 2월 1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고, 그동안 시간제한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 월차, 연차 등 법정수당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본 건은 70%에 이르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적인 보호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건은 당사자들을 포함한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확보해낸 커다란 성과이다.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설립

학습지 교사가 일어났다. 위탁계약직이라는 이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노동부는 12월 7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었다. 현재 학습지 교사는 전국적으로 1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여성이다.

이번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의 신고필증 교부로 비슷한 노동조건을 가진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년부터는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완전보장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2) 여성단체의 낙선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와 행보를 같이 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앞으로 선거기간 내내 총선시민연대와 함께 낙선낙선운동에 전력투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연합은 일부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 지지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28개 산하단체를 동원해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낙선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과 함께 반여성적인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월 12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주최하는 부패정치 추방대회에서 여성 대행진을 주도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주부선언의 형식으로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여대생들의 투쟁

전여대협산하 각 대학에서는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방중에 조직생활을 정비하고 새내기 시업들을 치러냈으며 김성희씨 살해사건 및 400차 수요시위를 성과적으로 벌여내면서 반외세투쟁을 다시한번 힘있게 결의하고 있다. 이번 아니라 노동자들 및 여성단체와의 연대시업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대학에서뿐 아니라 전여성민중으로 운동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내고 있다. 특히 여성노조 및 여성노동단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대학에서부터 여성의 취업과 노동문제를 현안삼으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5) 조국통일정세

남북 여성지도자 16일 베이징서 만난다

남한 여성지도자가 오는 1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여성교류 문제 등을 협의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위원회 관계자 7명이 오는 16일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 평화와 여성 연대를 위한 조선여성협회 홍선옥 회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며 '광복 55주년인 올해 남한 여성교류를 활성화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과 접촉을 가질 예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위 관계자 7명이 7일 북한 주민접촉 승인 신청을 했다'면서 '이미 이 단체는 북한을 다녀오기도 한 만큼 승인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접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은 김길자 경인여대 학장, 최영희 내일신문 사장, 박정자 대한약사회 여성위원장, 강교자 대한YWCA연합 사무총장, 박숙현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장, 장한백 상군관대 교수, 송경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협력사업부장 등이다.

북 여성단체들, 이남의 미군민행 규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남한여성을 아수적으로 살해한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고려봉사관리국 옥류관 종업원, 평성웃공장 개성 9월 1 4 일피복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장집회들이 진행되었다. 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이남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단순히 남조선의 한 여성의 운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선여성들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고 우롱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초보적인 양심도 이성도 도덕도 모르는 인간백정들이라고 하면서 미제를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연설자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항거는커녕 도리어 살인마들을 비호두둔해 있다고 규탄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현실은 이남여성들이 반미자주화투쟁의 가치를 높이 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살인마 미제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 그에 아부굴종하는 사대매국노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반미 반과외 항전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북)3.8국제여성의 날 기념대회

3 8 국제부녀절 9 0 톨을 맞으며 평양의 인민문화극장에서 7일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중린비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류미영위원장, 백남순외무상등과 각계층 여성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조선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 부인들과 외국여성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전연옥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4. 시기규정

1) 일꾼들의 준비정도를 정비하고 대중들속에서 2000년 일구어아할 사업과 투쟁의 물꼬를 터뜨리는 시기입니다.

개강을 맞이하고 본격적으로 학우들을 만나고 대중사업들을 펼쳐나가는 시기입니다. 조직생활을 인착화하고 일꾼들의 준비정도를 부단히 높히면서 대중들을 만나고 대중들의 힘으로 사업과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2000년 장기적인 투쟁의 계속속에서 학우들속에서 우리의 투쟁의 내용을 합의하고 일리기 위해 대학우선전선외의식에 주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속에서 이후에 대중적인 투쟁을 일구기 위한 역량을 축적시키고 대중들의 사상적 각을 세워내야 할 것입니다.

2) 범국민반미항전으로 대중들의 의식흐름을 만들어 가야 할 시기입니다.

미국의 식민지배로 인하여 한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성이 반미투쟁에 주인답게 임하기 위해서는 주체 스스로의 관점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범국민반미항전은 아주 멀고도 어려운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3.4월 학내에서부터 대중들의 의식을 장악하기위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부터 반미투쟁의 불씨를 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3) 400차 수요집회의 성과를 이후 반일투쟁으로 일분군'위안부'문제의 폭과 수위를 높여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400차 수요집회를 통하여 만들어진 정치적 조직적 성과를 반일의 관점을 더욱 명확하게 틀어쥐고 2000년 학생전범법정을 대중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시기입니다.

4) 여성민중과 여성단체의 투쟁에 함께하여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의 파고를 높여내야 할 시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와 함께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낙선낙천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들의 정치의식의 고양을 엿볼 수 있으며 부패한 정치권력을 여성의 힘으로 강제하겠다는 역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투쟁이 각지에서 전개되고 대중적인 투쟁을 위해 조직을 정비해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여성민중의 힘을 또다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투쟁의지에 여대생들이 동참하면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의 흐름으로 모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5)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이끌어내고 2000년 전여대협 총노선에 합의해내면서 새천년 6기 전여대협을 함있게 건설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여학생운동단위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꼽는 것은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합의와 구체적 운동의 전망을 이야기 합니다. 모든 운동이 올바른 해방이념을 가지고 지도 조직될 때만이 빨리 그리고 올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올한해 과제에 대하여 합의해 내면서 6기 전여대협총회를 통해 전여대협을 강화시켜내는 것 이것이 이시기 우리에 과제입니다.

5. 조직사상적 과제

개강이후엔 겨울잠을 자고 나온 개구리 모양 방중 학원내에 볼 수 없었던 학우들이 수강신청하느라 첫수업을 들어가는라 비쁘게 교내 곳곳을 돌아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회조직이 사람사업을 하는 조직인지라 새내기 사업이다 개강사업이다 해서 그간 볼 수 없었던 학우들을 만나다 하면서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나서는 문제들을 돌아보면 대중들을 만나고 이런 저런 사업을 준비한다 하지만은 일꾼들의 준비정도가 부족하여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고 활동에 비해 성과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꾼들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총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작정 달려가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긴 호흡으로 사업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기본적인 조직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1) 기본에서 다시 출발하자

사람을 기본에 둔 조직생활을 기획하자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은 정작 사업을 함께 집행할 일꾼들의 조직생활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아서 일꾼들 개개별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고 일꾼들이 오늘 하루는 무엇을 하고 자셨는지도 제대로 총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을 접고 기본적인 조직생활속에서 부족하다면 채워갈 수 있도록 합시다.

① 조종례 및 회의를 안착화하자.

조례를 통하여 오늘의 할 일을 공유하고 학우들을 만날 때 필요한 내용적인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종례속에서 하루동안 한 일을 점검하고 일꾼들의 하루의 성과를 세워주고 부족한 점은 서로가 채워갈 수 있도록 하며 하루동안 만난 학우들의 의식흐름과 요구들을 총화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종례속에서 일꾼들을 일꾼답게 주제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실무적인 점검만이 아닌 오늘하루 만났던 학우들에 대한 총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화와 점검을 정례화 합시다 총화란 어떻게 하는것인지부터 다시 점검해보자 / 점검시기와 방법을 꼼꼼히

회의 운영을 혁명화하자 회의만 잘해도 일의 효율과 성과 및 간부들의 고민까지 풀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방법을 잘알자

간부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 및 조직생활을 틀과 내용을 세밀히 짜들어가지

② 중앙에서 집중하는 시간과 기층과 학우들을 만나는 시간의 배치를 잘 하자.

회의등으로 중앙에 집중되는 시간을 줄이고 짧은 시간이더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래로 부터의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층으로 학우속으로 일꾼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꾼들이 직접 대중을 일구는 사업에 능수능란하지 않으므로 기층과 학우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서는 문제를 제대로 총화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사업을 잘하는데 대하여

지도사업을 하는 일꾼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지도사업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또는 해도해도 안된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사업이란 무엇이고 중요성을 각인하자!

우선지도사업이란 당면한 사업과 투쟁의 내용을 기층일꾼에게 잘 해설해주고 대책을 세워주며 단위의 현황을 잘 요해하고 나서는 어려움을 풀어주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사업이란 우리 사업전반을 기층에 풀어내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지도사업에 대한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야합니다. 또 여학생운동의 현실상 각 단위마다 공통적인 조건이기 보다는 여학일꾼들의 단련정도가 각기 상이하고 조직의 기풍이 다르며 나서는 문제가 다종다양하므로 이러한 것은 몇글자의 문서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학단위에서는 구체적인 지도사업이 무척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위에 대한 애정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겠지만 지도사업에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단위를 책임지겠다는 마음, 일꾼을 사랑하는 애정이 없이는 안됩니다. 우리의 운동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지도사업은 사람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애정과 끈기가 없으면 쉽게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도사업을 정례화 하고 내용을 정하자

가끔 시간나면 내지는 중앙실무사업이 다 끝나면 간다는 식이 아니라 단위의 여러일정과 잘 맞추어 늘 정기적으로 총화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언제갈 것인지 정리하고 내려가서도 그냥 총화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내용으로 지도사업 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합시다.

단위에 내려갈 준비를 잘하자

우선 지도사업을 하려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자주내려갑니다. 우선 지도사업단위 여학일꾼들과 인연을 트고 이것저것 사소한 것

과도 총화하면서 인간적 애정을 쌓아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라 한 두 번 지나고 나면 단위현황은 파악할 만큼 파악되고 구체적으로 단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고 계속적으로 점점 총화에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부터 망하기 시작 합니다. 지도사업은 우선 외형적으로 화수와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한번을 내려가더라도 단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과 자질이 필요합니다. 단위가 힘들다하여 가고보자식의 생각보다는 이 단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깊이 고민하고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2) 일꾼들의 학습을 안착화하자.

우리가 여학일꾼이 됐나 싶은 정도로 중앙에서 기층까지 여성학학습이 부족한 실정이고 학습의 목마름을 절실하게 느끼는 몇몇 일꾼만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꾼들의 학습정도를 파악하여 일꾼들의 수준에 맞게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학습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목적의식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꾼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자주적여학생운동론부터 숙지합니다. (기존의 이론에서 부족한 점이 많음으로 일꾼들간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꾼들이 여학생운동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과 투쟁에서 중심을 잡지못하거나 골간 일꾼과 여학생회의 위상에 관련된 논쟁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후 전여대할총노선과 함께 제출될 자주적여학생운동론(자주적여성운동론)이 맞는 제목의 기본틀거리에 맞춰 토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핵심들의 역할을 높이자.

여학단위내에서 일꾼들의 재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교별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몇 안되고 대부분의 핵심일꾼이 대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일꾼들이 사업의 경험이 부족하므로 먼저 고민하고 계획하지 않으며 조직전체가 정체되기까지도 합니다. 핵심들의 역할을 높인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핵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여서 전파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자세를 갖자는 것과 조직 전반을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다른 일꾼들이 실수를 하거나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주체로서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세워줄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

4) 장기적인 전망과 구도를 내외야 합니다. 총노선과 사업계획서 꼭 수립합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현재 총노선수립을 진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노선이란 한해 단위가 나아가야 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총노선은 1년 사업과 투쟁에 대한 계획이므로 이것이 없이는 달별 월별 사업 계획이란 한시적일 수 밖에 없고 단편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과 투쟁으로 비쁜 날 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총노선 사업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여학단위의 경우는 그 체계와 운동내용의 복잡성으로 해야 할 과제도 많고 단위 조직현황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단위의 현실속에서 투쟁을 어떻게 풀어나가 할 것인지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기층강화사업-소모임, 과여부

① 사람을 묶는 사업인 만큼 대중들과의 만남속에서 자기대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중들과의 일대일 만남을 강화하고 여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자보를 쓰는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여학생운동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대일 만남이라고 해서 한사람만을 붙잡지 말고 함께 어울려 무리를 짓고 다니는 학우들을 함께 묶어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소모임의 경우 소모임의 성격을 명확히하고 이에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대중을 묶어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모임이나 매매춘문제를 고민하는 소모임, 기지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모임등 소모임의 성격을 명확히하고 이에 맞는 사업과 투쟁속에서 소모임에 함께 할 수 있는 인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과여부의 경우 대중들에게 여학생운동이 무엇인지 인식시키고 여학우들의 자기조직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회를 처음 접하는 새내기와 2학년 학우들을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이 무엇인지 실천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기조직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당장 과여부를 건설할 수 없더라도 각 학년별로 주체나 학년여부장을 마련하고 여학우들의 자생적인 모임이나 작은 실천단부터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여학우들의 모임이 과여부나 학년여학생부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주체를 마련하고 주체의 준비정도와 활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주체를 마련한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단편되지 않았어도 키워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새내기가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체의 수준에 맞게 1, 2학년을 중심으로 낮은 수위에서부터 소모임이나 여학생부를 꾸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소모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자를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학생회단위를 통하여 과여부를 책임질 수 있는 우호적인 학우나 학년별 대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련된 주체만을 만날 것이 아니라 주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학우들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이학우들이 여학생회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여학생운동의 감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체들이 대중과 괴리되지 않도록 활동이 대중들속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⑤ 소모임사업과 과여부사업의 일년계획과 낮은 수위더라도 올해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일년의 계획과 목표를 꼭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구성원들이 활동의 상을 그릴 수 있어야만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활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소모임에 묶인 대중들이나 과여부일꾼들이 자체적으로 계획과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고민에서 만들어져야 의욕을 가지고 활동에 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계획과 목표의 방향이 잘못 틀어지지 않도록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6 실천속에서 소모임과 과여부가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합시다.

3.4월에 제기되는 대중투쟁을 만들어 가는 속에서 사람을 만들고 구성된 소모임이나 과여부가 단위성격과 수준에 맞게 몇 개의 대중투쟁과제가 나와 책임지고 활동하는 속에서 자기단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람사이에서 나서는 문제를 잘 해결하자

운동이라는 것이, 학생회 생활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업인지라 사람의 문제는 우리 운동 전반에서 고민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문제는 우리 활동의 근본이며 핵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의 경험이나 자질에 맡겨두거나 운동적 원칙을 교조적으로 적요하거나 하는 편향이 나타납니다. 이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람과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매우 일체적이고 조직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면 그 즉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웁시다.

대부분 문제의 시작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 원인이 겹치다보면 더욱 커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나타난 때 그 때 바로 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총화때 하지, 나중에 시간있을 때 하자 그러다보면 총화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그 때, 그 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맙시다.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조화가 잘안된다, 누구누구의 얼굴이 밝지 못하다, 말이 삐딱하게 나온다등의 여러 현상적인 모습에 대한 총화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적 모습뿐 아니라 이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원인에 대하여 일체적 파악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그저 단순히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그가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문제의 요소가있는지 하나하나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혁신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자신의 낡은 사상적 잔재와 독소들이 발현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위하여 자신의 혁신과제를 내올 수 있도록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짜내어서 이후 사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합시다. 혁신의 과제는 한사람만이 내오는 것이 아니라 조직성원 전체가 내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문제가 있는 동지를 견인하기 위한 다른 일꾼의 혁신과제를 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모든 것을 풀어내는데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미워지고 서로 관계가 소원해질때는 어떤 일꾼의 잘못 내지는 부족한 점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자면 이세상에서 문제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사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가능성과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에 대한 믿음과 조급함을 버리고 끈기있게 바라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동지를 믿고 함께하지 못한다면 어찌 많은 대중을 우리의 대오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잡합시다. 실무적인 일은 좀 못해도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틀어지거나 떨어지면 다시 만들기 무척 어렵습니다.

실무적 자질에 뛰어난 간부가 되기전에 정말 동지에게 사랑받고 동지를 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투쟁을 하기전에 먼저 인간이 됩시다.

6. 대중투쟁과제 및 방도

2000년 투쟁을 준비하는 시기단계 모든 투쟁영역에 있어서 대시민·대학우 선전의식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도록 합시다. 3월과 4월 초까지 만들어진 대중의식의 흐름을 전여대협 총회로 총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전여대협 총회과정에서 투쟁의 파고를 높여서 4월의 흐름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합시다.

◎모든 영역의 대중투쟁과제들이 반미비일민외세로 반정부감대중퇴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합시다.

★ 각 영역별의 의·조직화 방도에 대하여

현재 단위마다 조직정비가 아직 미비하고 일꾼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출되는 투쟁과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모든 투쟁과제들이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단위역량에서 맞게 모든 투쟁과제들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위별로 나누는 방법-기층단위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단대나 과단위별로 하나씩의 투쟁과제를 나누어 한 기층단위당 한가지 투쟁영역을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선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층단위가 없는 경우는 총여일꾼들이 각 영역별로 분공반을 수 있도록 합시다.

·주간이나 날짜별로 나누는 방법-매주마다 한 영역별로 나누거나 요일별로 나누도록 합니다. 예) 반미지주회주간(요일), 여성민중생존권주간(요일)...

·소모임이나 과여부를 발동하여 진행하고 이후에 활동이 소모임이나 과여부를 조직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합시다. 또는 각 투쟁영역을 연구

하고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모임을 새내기를 중심으로 꾸려내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각 투쟁의 내용을 연대단체에 알리고 지속적인 연대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대중투쟁을 일구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갑시다. 구체적으로 한국 여성단체연합과 총선투쟁과정에서 김대중정권퇴진의 내용을 알리거나 전민투위활동을 여성단체와 함께 광고히 가져나가면서 반미의 각을 세워 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수검민회를 여학단위에서 주동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 의식화 과정에서 주의사항- 학우들을 의식화한다고 해서 달랑 선전물 몇가지 쓰고서는 할 일 다했다는 자기만족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의식화과정이 일꾼들부터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토론·논의과정에서 의식화내용이 일꾼들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겠음 일꾼들이 먼저 의식화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의식화 과정은 조직된 새내기들과 항상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전물을 쓴 후 마지막으론 꼭 직접 학우들을 만나면서 의식화 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1) 외세에 의한 여성의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

① 주한미군 철거투쟁

2000년 범국민반미항전으로 내달리기 위한 대국민선전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장 커다란 사업이나 투쟁을 계획하기 보다 일상에서부터 학우들에게 반미의 각을 세우고 반미투쟁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여학단위에서는 김성희씨를 살해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서정민씨를 죽인 오만방자한 주한미군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반미투쟁을 일구어 나가도록 합니다.

-의식화 내용

주한미군의 문제와 그외에 정치군사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미국의 식민지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알려낼 수 있도록 하자.

-주한미군과 전쟁책동을 중심으로-

- 김성희씨 사건과 경과보고, 서정민씨 살해사건
- 기지촌과 미군기지음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범죄들
-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감행하고 있는 전쟁책동의 음모들-경제침탈로 인한 여성들의 억압-
- 구조조정이후 노동의 주변인으로 떠밀리고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 구조조정으로인한 가족들의 실직과 세울과 물가의 상승이 증척되면서 생기는 가정에서의 생활고 이에 따른 가정주부와 여대생의 어려움(휴학이나 퇴학의 증가, 매매춘의 증가등)

-외세의 왜곡된 성문화의 유포-

-조국통일투쟁과 결합될 수 있도록 하자.

한국여성단체연합과의 이북에서 제안된 전민투위활동속에서 반미투쟁과 함께 남과 북 민족의 투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자.

-연대단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책임질 연대단체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만남과 의식화과정을 통해서 공동의 실천을 기획하거나, 전민투위활동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

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해결투쟁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민족·계급·성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서 명확히 반일의 관점을 틀어 쥐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한 대중선전의식화의 흐름을 장악하는 데 주를 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400차 수요집회때 조직화되었던 학우들을 계속적으로 발동하여 괴여부나 소모임활동으로 묶고 일본군 '위안부' 투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제로 만들어 갑시다. 이러한 흐름이 2000년 학생전범법정으로 총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식화 내용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이에 관련한 민간기금과 역사책을 왜곡서술 하려는 문제들
- 2000년 전범법정의 소개와 의의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경제적인 요인, 군사적 움직임, 합동군사훈련, 군국주의적 발언과 출판물의 발행등)
-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의 문제와 이에따른 어민들의 생존권등의 문제·기무치를 세계평준화 시킨 문제
- 일본의 문화개방과 한자병용

-3자연대 서명운동을 총화하고 이어나가자

작년에 진행되었던 남북해의 3자연대로 진행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이어나갑시다.

*서명용지는 곧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대활동속에서 강화하고 지속화하자.

수요집회를 주창적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연대단체에 일본군 '위안부' 해결투쟁을 알리고 수요집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자연대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여성민중들의 생존권 투쟁

①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현재 IMF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여성계안에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쟁취를 위한 투쟁들이 속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자주성이 발양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동시에 여성노동자의 억압과 착취가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의 문제를 명확히 비정규직의 내용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까지 여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적인 의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여성노동과 실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에 일차적으로 의식화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비롯된 여성노동자의 억압을 과학적으로 알리고 실례를 들어서 현실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식화 내용

- 미국의 경제적인 침탈과 이로인한 여성들의 실업과 비정규직여성의 증가·여성노동환경등 여성노동현실과 임금, 산전산후휴가를 법적으로 축소시키고, 상리휴가를 폐지시킨 정권의 작태
- 법·제도적인 보호뿐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비정규직여성과 소규모사업체의 여성들의 문제
- 졸업한 여학우들의 실업과 취업실태와 어려움
- 사업장에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의 생생한 이야기

-여성노동자와의 연대를 강화하자.

여성노조를 광범하여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직접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지역은 전국여성노조의 노동지기활동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를 직접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끝간단위에서 연대하고 있는 노조의 여성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여성노동자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여성노조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억압을 반대하는 투쟁

① 매매춘을 반대하는 투쟁

현대 매매춘은 과거의 특수한 소수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매매춘의 확산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적 가치로 만들어 이윤을 착취하려는 자본주의의 성상품화논리가 IMF이후 빈곤으로 허덕이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여성의 매춘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서비스직의 확산으로 사창기를 통한 매매춘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선으로 손쉬운 방법에 의해 쉽게 매춘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권에서는 미성년자를 매매춘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듯 광고하고 있지만은 공창제도를 입법화하려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매매춘자체를 인정하면서 매매춘의 근본적인 척결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매춘여성을 사회로 복귀하게 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단속만을 강화한 보이기식의 정책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발로 들어갔으니 매춘을 한 여성의 잘못으로만 보는 잘못된 사회의 인식부터 바꾸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그 양상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투쟁또한 대대적인 의식화과정을 통해서 투쟁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식화 내용

- 김대중정권의 매매춘단속정책의 허구성
- 공창제도 입법화
- 매춘여성을 착취하고 다시는 매춘업에 발을 뺄 수 없겠끔하는 구도와 포주의 문제·일반가정에 까지 유입되어가고 있는 매매춘의 심각성·매매춘을 부추기고 있는 사회의 요인들

-연대사업에서

한소리회와 같은 매매춘근절 운동단체를 방문하고 하루 매화를 기획한다면가 연대하는 여성단체에 매매춘의 문제를 알려내자.

②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 투쟁

학내의 성폭력의 문제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기부장제 및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되고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당연한 사회적 풍토로 여기는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로인하여 여학생에게는 학내에서 여성노동자에게는 사업장에서 주부에게는 가정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학내성폭력 규제 학칙제정 투쟁은 학내성폭력의 문제와 함께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사회의 성폭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투쟁을 성폭력 척결의 투쟁으로 만들어 가아합니다.

성폭력 규제 학칙이 제정된 학교를 보면 학칙의 허술함과 이러한 학칙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학우들에게 알려지지 않음으로 실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 투쟁은 대중들의 힘에 의해 대중들의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학우들 속에서 학칙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학원내의 성폭력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과정부터 학칙을 학우들의 논의속에서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학칙으로 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을 만들어 갑시다.

-의식화 내용

- 성폭력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 학내 뿐 아니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의 문제들 · 학내성폭력의 심각성
- 성폭력 규제 학칙의 필요성
- 가인의 학칙내용

4) 총선을 앞둔 김대중정권 퇴진투쟁

총선투쟁을 명확히 김대중정권을 심판하는 장으로 만들어 제야만 한다. 김대중정권이 집권한 이후 가시적으로 보이는 여성정책이 강화되어서 여성단체중에는 아직 김대중정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권의 사대매국성과 반여성성을 알리면서 전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는 한 여성의 자주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려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김대중정권의 반여성적인 시책과 김대중정권이 집권한 이후 삶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알려내어서 김대중정권의 반여성적인 본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단체와 함께 낙선낙천운동의 연대속에서 김대중 정권퇴진의 공분을 모아내도록 합니다.

-의식화 내용

- 기간 자행하였던 김대중정권의 반여성적인 시책들
- 기간 제시했던 김대중정권의 여성정책과 실제 여성들의 삶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으며 지금 여성들의 삶의 현실은 어떠한지 비교분석
- '이런 후보자는 안된다!' 여학단위 자체적으로 낙선낙천이 되어야 할 후보자에 대한 판단원칙을 제시하도록 하자.
- 예) 여성비하의 발언을 한 후보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일본정부를 두둔하는 후보자, 공청제도 입법화를 주장하는 후보자, 모성보호를 가로막고 생리휴가폐지를 주장하던 후보자, 등 반여성적인 후보자, 국가보안법 준치를 주장하는 후보자, 이북을 비방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후보자, 이북을 인정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후보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며 외국의 경제와 자본을 유치하려하고 민족경제를 발살하려는 후보자,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자들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후보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제출된 3명의 반여성적인 후보자와 근거(위의 의식화내용에 관련한 자료는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 조국통일투쟁

(위에 각 대중투쟁과제에서 제출된 내용을 묶었습니다.)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이어 자주교류투쟁과 3지연대투쟁의 파고를 높이고 전단위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자주교류과 3지연대투쟁이 힘을 가지고 조국통일이 성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상층간의 투쟁이 아니라 대중속에서 합의되고 대중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투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년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민특위활동속에서 여학우들과 여성단체가 미국의 본질을 깨닫고 조국통일의 주인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① 전민특위를 여학단위에서부터 합의해내고 여성단체들까지 합의해나가자.
전민특위를 알려내고 합의해 들어가면서 함께 할 것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3자 연대 서명운동을 총회화고 이어가자.
작년 전단위에서 힘있게 진행되었던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의 3지연대 서명운동의 성과는 참으로 컸습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작년의 서명과 함께 총회될 수 있도록 하여 남북해의가 하나된 힘으로 청와대와 일본측으로 보내어 정권과 일본정부를 압박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 ③ 자주교류 사업의 물꼬를 트자.
알려의 자주교류투쟁의 흐름을 계획하고 그 시작을 위해 물꼬를 터가도록 합니다.

6) 연대사업

1학교 1노조 1농민회 1여성단체 -1111운동 계획을 세워낸다.

연대단위를 모색하고 1111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연대단체와의 만남을 만들어 갑시다.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본군위안부투쟁, 주한미군철거투쟁등 여학단위의 투쟁의 내용을 의식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도록 합니다. (위의 각투쟁영역을 대국민적으로 의식화하는 방도적 측면으로 이용합니다.) 특히 총선투쟁과 전민특위를 함께 할 것을 권유하고 합의해 들어갑시다.

7. 핵심사업

- 1) 3월 30일 한총련 총결기
- 2) 4월 1일 권역별 민중대회-여성노조, 여성단체와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4월 6-7일 전여대협 총회
기조
1. 모든 일꾼과 대중들이 전여대협 총회를 통하여 교양되고 단련되어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주인주체로 설수 있도록 하자.

2. 기간의 대중투쟁의 의식흐름을 총괄총화하고 이후 투쟁의 결의 다질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자.
3. 많은 대중들의 지지와 임호속에서 치루어 지는 전여대협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자리로 만들어 가자.
4. 전여대협 총회를 주체한 단위의 여학생운동을 항상·발전 시킬 수 있는 전여대협 총회로 만들어 가자.

- 4) 4월 7-9일 한총련 대의원대회
- 5) 4월 11-12일 한총련 총력투쟁
- 6) 4월 28-29일 2000년 학생 전범법정

기조

1.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투쟁을 반일투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자.
2. 기간의 반일의 흐름을 모아서 2000년 학생전범법정을 성사시키고 이후 투쟁의 파고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
3. 의식화정도가 낮은 학우들까지 함께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자기로 만들어 가자.
4. 더 많은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시민들에게 알려내어 정권에 대한 강제력을 높여내자.

-의·조직화방도에서-

단위별로 2000년 학생 전범법정을 전후로 하여 반일의 흐름을 만들어 갑시다.

꼭! 2000년 학생 전범법정을 참여하기 전에 학교별로나 지역거점에서 지역별로 자체적인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그속에서 만들어 지는 대중적인 흐름을 가지고 2000년 학생 전범법정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합시다.

@참고자료- 이북에서 3.8대회를 맞이하여 '조선여성들의 사회적역할'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북의 여성들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조선여성들의 사회적역할

(평양 3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에서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사회의 큰 몫을 맡고있다.

여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정사에 광범히 참가하고 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각급주권기관에서 대의원으로 사임 하는 여성들은 전체 대의원수의 20.1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인민경제 로력구성에서 여성비율은 거의 50프로나 된다. 특히 교육, 문화, 보건 부문과 상업류통, 편의봉사부문, 방직, 일용, 식료기공 부문에서 여성들이 노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

여성들로만 운영되는 공장, 기업소, 교육, 문화기관들이 수대하며 많은 여성들이 책임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일할수 있는 온갖조건을 지어주고 있다.

평양방직공장 근로여성들의 로동생활은 그 단적실례로 된다. 70만 3,500여평방미터의 부지면적을 가진 이 공장은 나라의 이름 있는 천생산기지의 하나이다.

현재 이 공장은 종업원수의 75프로에 달하는 여성로력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공장에는 근 20개에 달하는 탁아소, 유치원이 있고 이동병동과 어린이들을 위한 양어장까지 훌륭히 꾸려져 있다. 그리고 정양소와 병원, 상점, 밥공장 등 온갖 편의봉사시설들도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어린이가 있는 여성들은 따로 조직된 60여개의 애기어머니직업반에서 국가의 많은 추가적혜택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